

제 254호 · 2014년 4월 30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폭발적인 전자 상거래 시장 팽창, 글로벌 소매물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물류정책·사업동향

1. 일본 Yusen Logistics,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간 트럭운송 서비스 시작
2. 자동차 메이커의 중국 내륙지역 진출로 도로화물 운송수요 증대 예상
3. ICTSI, 이라크 Umm Qasr 항만 운영 사업권 획득
4. 아마존, 운송비 절감을 위해 자체 물류 서비스 도입

물류시장동향

1. 러시아 무르만스크 석탄터미널 투자협정 체결
2. 유럽연합 역내 도로운송 서비스 생산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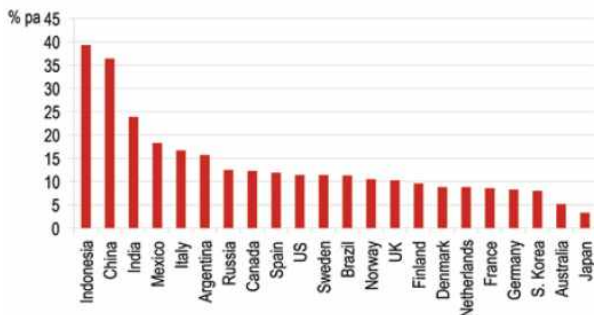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글로벌물류이슈

□ 폭발적인 전자 상거래 시장 팽창, 글로벌 소매물류 구조를 바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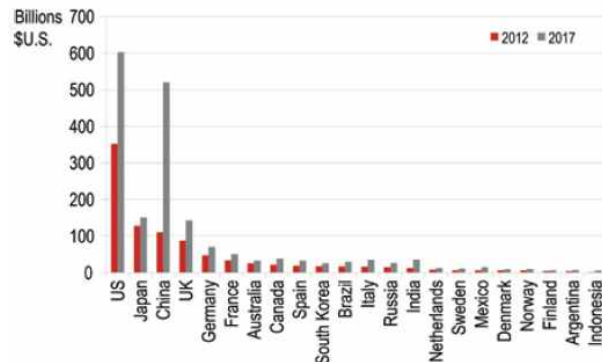
- 글로벌 전자 상거래(e-commerce)¹⁾ 소매시장, 매년 폭발적인 고속 성장 중
 - 유로모니터의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 소매 매출액은 2012년 총 5천799억 달러를 기록,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4.8%씩 고속 성장
 - 같은 기간 글로벌 소매시장의 전체 성장률은 0.9%에 불과
 - 온라인 전자 상거래 소매시장 매출액 급신장의 최대 요인은 주문 및 수하물 수취의 편리성과 신속성(이른바 "click and collect")
- 2013~2017년 B2C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연간 14.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최고의 성장률은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가 될 것으로 예측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동기간 두자리 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 전자상거래 매출액 증가 속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조정될 전망

<B2C 전자상거래 성장률, 2013-2017>



자료 : eMarketer

<B2C 전자상거래 매출액 순위, 2013-2017>



자료 : eMarketer

- 전자 상거래 소매시장은 선진국형과 개도국형으로 유형 면에서 뚜렷한 차이 표출
 - 선진국 전자 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전체 소매 시장의 5~15%의 수준이며, 1인당 온라인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통점 공유
 -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등과 함께 전자 상거래 선진국으로 꼽히며,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매출 비중은 13%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

1) 전자 상거래는 크게 협의와 광의로 양분할 수 있음. 협의의 전자 상거래는 인터넷상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뜻하며, 광의의 전자 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 외에 거래 관련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 거래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 행위를 포함.

- 전자 상거래 강국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인터넷 및 휴대전화 보급률(평균 77%), 낮은 고정/광대역 서비스 가격(월 소득 2% 내외), 온라인 구매의사를 갖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촉진시키는 보안관련 규제 인프라, 잘 발달된 물류 인프라, 성숙한 소매 시장 보유 등의 특징을 보유
- 반면 개도국 전자 상거래는 낮은 인터넷 보급률, 지역간(도농간) 보급률 편차, 높은 고정/광대역 서비스 비용(월 소득의 11~25% 수준) 등의 특징을 보이며, 실물 소비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상태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 선진국형>

국가	온라인 소매시장 비중 (2012년)	전자상거래 매출액 성장률 (2012-2017, % pa)	물류성과지표 (World Rank, 2013)
미국	6.5	11.4	9
영국	9.7	10.3	10
독일	5.1	8.3	4
프랑스	5.1	8.6	12
일본	3.9	3.3	8
호주	6.3	5.2	18

- 개도국은 전자 상거래 생태계 측면에서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지만 양자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추세
 - 특히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 인구를 갖고 있으며, 2017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B2C 전자 상거래국으로 등장할 전망
 - 전자 상거래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가 있음에도 세계 전체로 볼 때 전자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중국 외에 인도(3위), 브라질(5위), 러시아(6위), 인도네시아(8위) 등 주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세계 상위 수준이라는 해석에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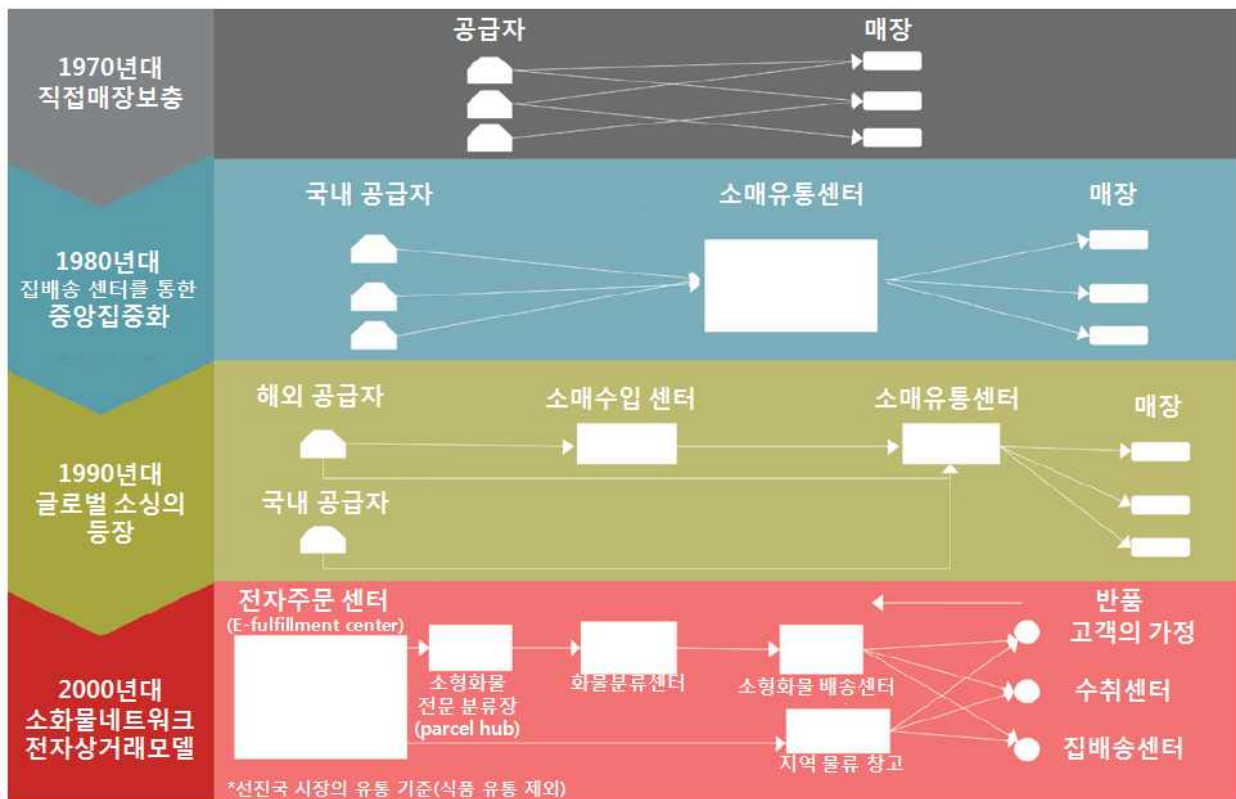
<전자상거래 소매시장 - 개도국형>

국가	온라인 소매시장 비중 (2012년)	전자상거래 매출액 성장률 (2012-2017, % pa)	물류성과지표 (World Rank, 2013)
브라질	3.4	11.3	45
러시아	2.2	12.5	95
인도	0.4	23.9	46
중국	4.1	36.4	26
멕시코	1.4	18.3	47
터키	2.2	-	27

- 전자 상거래의 고속 성장은 글로벌 소매 물류 모델의 변혁을 가속화

- 전자 상거래 물류 모델에는 거대전자주문(mega e-fulfillment) 센터²⁾, 소화물(parcel) 수집허브 및 분류 센터, 소화물 배송센터 등 3개 물류 시설이 필수적
- 전자 상거래 물류업에서의 경쟁력은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주문받은 물품을 배달하는 것'으로 아마존 등 글로벌 소매업체는 지역단위 대형창고(depot) 신설
- 전자 상거래 소매업의 또 다른 특징은 반품율(return)이 높으며, 이 때문에 반품처리를 위한 시설이 필수적
- 소매물류는 1970년대 공급자(도매상 포함)와 소비자간 직접 배송 체제, 1980년대 배송센터를 통한 배송의 집중화 체제, 1990년대 취급재화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수입품센터 확장시대를 거쳐 2000년대 전자주문이행을 위한 집.배송 네트워크 시대로 진입

<소매물류 시장의 진화>



자료 : jll, eCommerce boom triggers transformation in retail logistics whitepaper Nov.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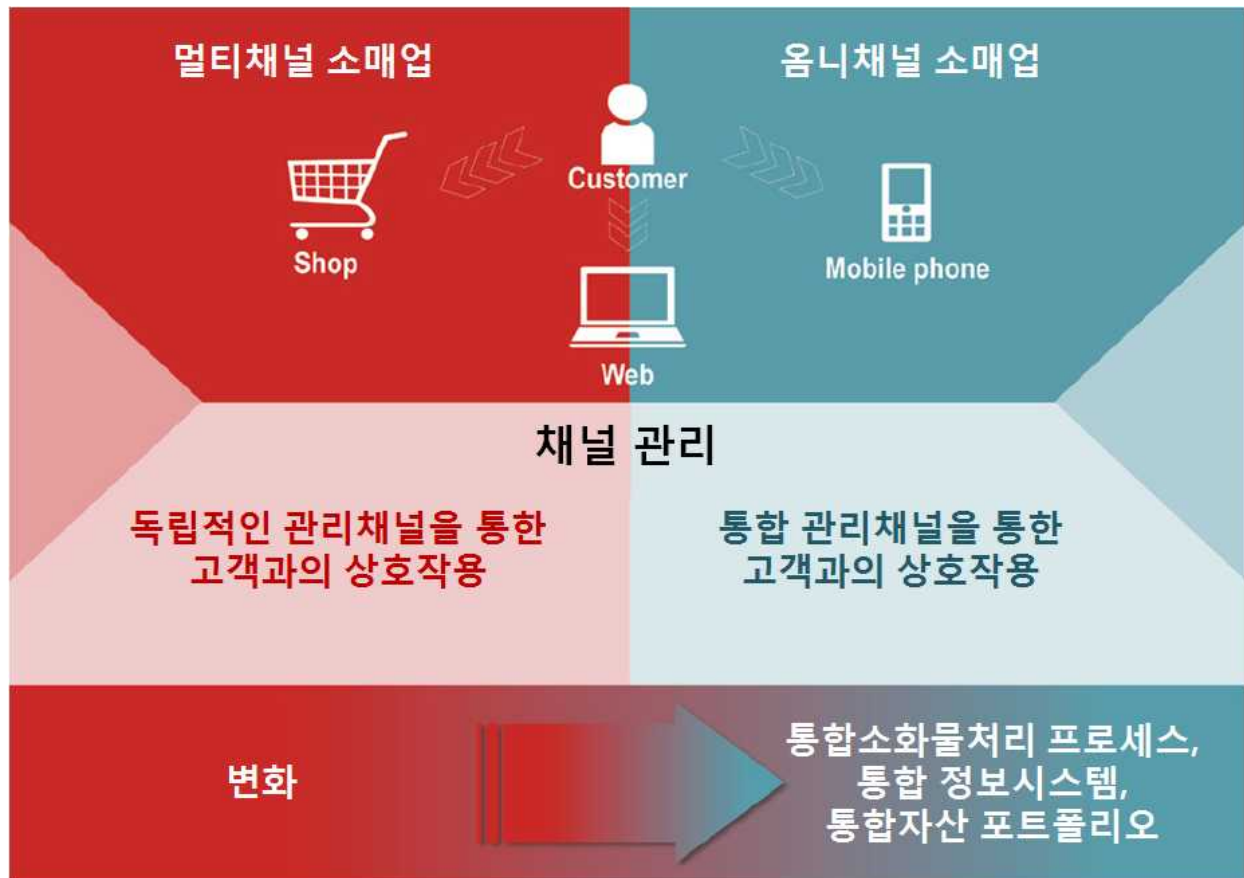
- 선진국 시장의 소매업은 전자 상거래 확장의 영향으로 멀티채널(multi-channel) 소매업에서 옴니채널(omni-channel)³⁾ 소매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
- 멀티채널 : 점포, 웹사이트, 휴대전화 등 각기 다른 채널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2) 보통 50만~1백만 평방ft 규모가 '거대'(mega)로 표현됨

3)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Omni)'와 제품의 유통경로를 뜻하는 '채널(channel)'의 합성어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모든 채널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객 가치를 극대화 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

- 옴니채널 : 각기 다른 채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 옴니채널 소매업의 핵심은 소화물 처리, 정보 시스템, 관련 인프라의 통합을 통해 소매업체들이 어느 위치에서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최상의 소비경험을 제공

<멀티채널과 옴니채널>



자료 : jll, eCommerce boom triggers transformation in retail logistics whitepaper Nov.2013.

-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월마트 등디 잇달아 전자 상거래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
 -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백화점 메이시스(Macy's)는 2013년 각 지역 분점으로부터 직접 온라인 주문을 받고 해당 분점에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실시계획 발표 (이를 위해 2013년 말 까지 미국 내 292개소 점포를 500개소로 확대)
 - 세계 최대 소매업체로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로 지목되는 월마트 또한 전자 상거래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포트워스(텍사스 주), 베들레헴(펜실바니아 주)에 거대 배송센터를 개설, 온라인 주문을 받기 시작
 - 월마트는 온라인 주문 물량의 소화에 130개 이상의 배송센터 등 방대한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전략
 - 월마트는 자사의 글로벌 전자 상거래 판매실적이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 1백억 달러(2013년 기록한 매출액의 약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미흡했던 식품 부문 전자 상거래도 활성화 전망
 - 현재까지 온라인 식품판매가 전체 식품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
 - 향후 식품 부문 전자 상거래 소매업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온라인 식품소매는 다온도(multi-temperature) 기능을 갖춘 집.배송 센터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단 개도국 시장에서는 채소 및 식품에 대한 온라인 소매업 미발달 (아직은 틈새시장 수준)
- 개도국 전자 상거래 시장은 중산층이 몰려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식품 분야 소매 물류모델이 구축되는 중
 -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을 중심으로 전자 상거래 네트워크 등장, 2011년 이후 지속적인 배송센터 건립을 통해 점차 내륙으로 확산
 - 러시아는 모스크바, 성 페테르스부르그에 러시아 소매업체 Enter에 의해 e-주문이행 센터가 발전
 - 브라질은 수도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도심지 30km 이내 위치한 바루에리, Caiamar, Guarulhos 등에서 전자 상거래 관련 시설 등장
 - 인도의 온라인 소매는 현재 인도 전체 소매 지출의 1% 이하에 불과하나 인도의 지역간 세제 차이를 역이용, 전자 상거래 수익 창출이 기대되므로 지역별 창고 네트워크의 발달 가능성이 존재
- 국가간 접경 지역 전자 상거래 또한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창출이 기대되므로 소매업체들의 관심이 고조
 - 특히 개도국 시장에서 전자 상거래 부문에 대한 진입 장벽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향후 전자 상거래는 휴대전화의 보급에 따른 이른바 'm-Commerce'에 의해 주도될 전망
 - 초기 전자 상거래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인터넷 보급 및 인터넷 사용자의 확산
 - 향후에는 이미 보편화된 인터넷 인프라 기반 위에 휴대전화의 급속 보급에 따라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결합한 전자 상거래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

자료 : www.jll.com, eCommerce boom triggers transformation in retail logistics whitepaper, 2013.11.

박성준 전문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일본 Yusen Logistics,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간 트럭운송 서비스 시작

- 일본 글로벌 물류회사인 Yusen Logistics는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국가 간 트럭 운송 서비스 South East Asia Link Service(SEAL) 시작
 - SEAL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을 연결하는 Full truck Load service(FTL)와 less than truck load service(LTL)로 구성
 - 신규 서비스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에는 주당 5회 운영되며, 말레이시아와 방콕 간,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 하노이 간에는 주당 2~3회 서비스 예정
- Yusen Logistics에 따르면, 새로운 도로화물 서비스는 기존 항공이나 해상을 통한 화물 운송보다 경제적
 - Yusen은 모든 운송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화물의 이동상황을 제공하고, 운송품질도 보증
 - 또한 2014년 3월, Yusen Logistics Thailand는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신규로 3만 평방미터의 창고를 태국 Laem Chabang에 개장
 - 이 신규 창고는 GMP, Thai FDA, Halal 및 기타 품질 및 관리 기준 준수
- Yusen Logistics는 전세계에 걸쳐 항공 및 해상 운송, 육상 운송 및 계약 물류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분야는 통관, 창고, 국제운송, 자동차 운송, 해상운송 중개, 컨테이너, 하역장비, 배송 장비, 물류정보시스템 임대,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및 기타 관련 사업 등

<Yusen Logistics의 운송 서비스>



자료 : railandroad.logistics-business-review.com

자료 : railandroad.logistics-business-review.com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자동차 메이커의 중국 내륙지역 진출로 도로화물 운송수요 증대 예상

- 중국 연안지역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 둔화로 자동차 메이커들이 중국 내륙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수송을 위한 도로화물 운송수요가 증대될 전망
 - 현재 중국의 1~2급 도시가 점차 포화상태에 이룸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내륙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
 - 또한 중국의 많은 도시가 도심정체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구입을 제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제동이 걸릴 전망
- 그러나 초기 내륙지역의 소규모 수요로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내륙지역에 생산공장을 신규로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자동차 메이커들은 도로망을 이용하여 연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존 공장에서 내륙의 판매 대리점으로 완성차를 운송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자동차 메이커의 내륙지역 진출 추세에 따른 도로화물 운송수요 증대는 물류기업들에게 성장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 중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SAIC Motor사의 물류업체이며 중국 최대 자동차 물류서비스 제공 업체인 Anji Automotive Logistics사⁴⁾는 완성차 집배송 사업을 확장 중
 - 다른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 역시 로컬 물류회사와 연계하거나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사 물량을 운송
 - 또한 물류회사인 Gefco는 2014년에 완성차 물류사업을 60%, 포워딩사업을 35%까지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공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Gefco의 완성차 배송물류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 증가를 반영
- 중국 내 완성차량 운송과는 별도로 항만에서 내륙으로의 자동차 부품 운송은 도로화물 수요를 증대시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
 - 일부 자동차 메이커들은 중국 중부 및 서부지역에서의 장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 내륙 지역에 신규 생산공장 설립을 단행하기로 결정
 - 이들 자동차 메이커들은 생산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로화물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이 필요
- 한편 화물분야의 투자증가에 편승하여 선사들이 도로운송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운송선사인 Nippon Yusen KK가 수십억엔 규모의 글로벌 확장 정책의 일부로 중국내에 보다 많은 트럭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4) 해당 회사는 SAIC Motor가 GM과 Volkswagen과 함께 설립한 2개 합작투자 회사의 물량을 포함하여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완성차를 운송하고 있음.

방식으로 선사는 복합운송망 전체에 대한 통제력 확보 가능

- 동시에 선사는 자동차 수입상에게 수입차량의 최초 출발지부터 중국 내 자동차 메이커의 창고나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체 구간을 아우르는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노력 경주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4.4.25.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ICTSI, 이라크 Umm Qasr 항만 운영 사업권 획득

- ICTSI는 이라크의 Umm Qasr항만의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과 그에 따르는 터미널 시설 장비에 대하여 1억 3,000만 달러를 투자
- 이라크의 주요 항만인 Umm Qasr는 액체화물, 건화물,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를 처리
 - 총 21개의 선석과 총 길이 5,000m로 되어 있고 2013년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50만 TEU
 - ICTSI와 이라크 항만기업(General Company for Ports of Iraq, GCPI)은 3개의 신규 선석 건설과 현재의 20번 컨테이너 선석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
 - 1단계로 200m 길이의 선석 개발 후 추가로 600m 길이의 선석을 개발할 예정
 - 두 개의 선석으로 연 90만 TEU를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라크 경제가 탈석유산업을 목표로 하면서 낙후된 인프라 시설과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 등의 확충에 집중
 -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육성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 불안정한 정치 체제와 정부 부패의 악순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
 - VENTYX 기업이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바그다드(Baghdad), 바스라(Basra), Kirkuk에 중앙전력관제센터가 설치 될 예정
 - Basra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건설중이며 생산 능력은 3,000톤/일 임
 -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통해 도시화 발전과 산업개발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따라서 이러한 산업육성 계획에 따라 향후 항만의 개발은 불가피하며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자료 : www.mb.com.ph, www.globalcement.com, www.pennenergy.com 2014.4.14.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 아마존, 운송비 절감을 위해 자체 물류 서비스 도입

- 아마존은 매년 증가 하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자체 물류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도입
 - 아마존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 자사가 감독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물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
 - 아마존은 자체 트럭을 이용하게 되면서 물류에서 과거 보다 많은 지배력을 가지게 되어 교통이 원활한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아마존은 지난해 말부터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상품에 AMZL 혹은 AMZL_US 표시를 부착하여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배송하기 시작
 - 기존에도 직접 배송을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존 Fresh에서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식료품과 같은 신선제품은 당일 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

<아마존 Fresh의 배송차량>



자료 : www.wsj.com

<아마존 물류창고>



자료 : mashable.com

- 아마존은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 인력의 충원을 통해 물류 역량을 강화할 전망
 - 최근 아마존은 구인공고를 통해 UPS, FedEx 보다 빠른 성장을 강조하며 물류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사로부터 탈피하여 비용절감과 배송혁신을 강조
 - 미국 자체 배송에 앞서 Jeff Bezos 대표이사는 이번 달 초 주주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을 통해 기존 영국 배송사들이 성수기 배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배송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
 - 아마존이 소규모 배송사를 이용할 때는 '아마존 Logistics' 이름을 사용하여 배송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기반의 소화물 운송사인 Yodel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는 등 물류에 대한 통제를 확대
- 자체 배송이 증가하더라도 기존 운송사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아마존은 오래전부터 자체 배송네트워크를 계획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보인 것은 최근
 - 지금까지의 아마존의 배송서비스는 대다수 UPS, FedEx, USPS와 같은 대형 운송사에서 처리

했으나, 지난해 크리스마스 성수기 배송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고객에게 20달러의 보상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 서비스를 강화

- 또한 UPS와 FedEx의 운임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5% 가량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마존의 2일 배송 서비스 멤버십 요금도 미국기준으로 전년도에 20달러 혹은 비해 25%가 상승
- 아마존은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약 6억 8백만개의 소포를 발송했는데 이중 USPS가 35%, UPS가 30%, 지역 배송사가 18%, FedEx가 17%를 처리했으며, 이같은 실적은 최근 몇 년간 유사
- 아마존이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경우, 최초에는 비용이 저렴하고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지역 운송사를 이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UPS와 FedEx의 물동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물량은 FedEx와 UPS의 매출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며, 아마존 또한 대부분의 물량을 기존 업체를 통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

자료 : www.wsj.com, www.businessinsider.com.au, 2014.4.24.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물류시장동향

□ 러시아 무르만스크 석탄터미널 투자협정 체결

- 러시아연방 교통차관 알렉세이 치데노프와 러시아 최대의 에너지 회사 로즈네프트(Rosneft)가 최근 러시아 최북단의 부동항 무르만스크의 석탄터미널 공사를 위한 투자협정 체결
 - 협정의 핵심 내용은 무르만스크 항만이 위치한 콜라(Kola) 만 서측 연안에 석탄 터미널(처리 능력 연간 2천만 톤 규모)과 석탄운송을 위한 철도 인입선의 개설
 - 무르만스크는 아르한겔스크, 비티노, 바란데이, 두딘카 등 북극해 연안의 러시아 항만 중 최대이며, 2011년 물동량은 2천5백만 톤을 기록
 - 따라서 금번에 체결된 석탄 터미널 공사가 완공되면 무르만스크 항만의 화물 처리 능력은 일시에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번 투자협정 성사로 러시아 연방의 북극해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
 - 러시아 정부는 북극 지역 개발을 위해 항만 확장, 철도 운송능력의 확대와 연결성 개선(2개역 증설 및 교량 건설) 등 종합 교통발전 계획인 '무르만스크 교통허브'를 수립, 추진중
 - 무르만스크 교통허브는 2018년 완료되며,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경우 무르만스크와 주변지역의 자원개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지난 10년간 러시아 전국의 항만 확장은 석유 및 석유제품,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확대에 의해 주도⁵⁾

자료 : www.portnews.ru, 2014.4.21.

박성준 전문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 유럽연합 역내 도로운송 서비스 생산성 감소

- EU 리포트에 따르면, 유럽연합 역내 도로운송 서비스의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운송은 유럽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화물 운송수단 가운데 하나로, 유럽 내 전체 화물운송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약 67%가 단일국가 내 운송
 - 그러나 도로운송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10년간 매해 약 0.2%씩 악화
 - 이러한 생산성 악화는 단일국가 내 도로운송 가운데 약 25% 가량이 공차로 운행되고 있다는 문제 이외에도 높은 운송비용에 기인
 -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폴란드 내 화물 트럭을 활용하여,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5) 2012년 러시아 전체 항만 물동량은 5억3,500만 톤으로, 이중 석유 및 석유제품이 56.5%, 석탄이 16.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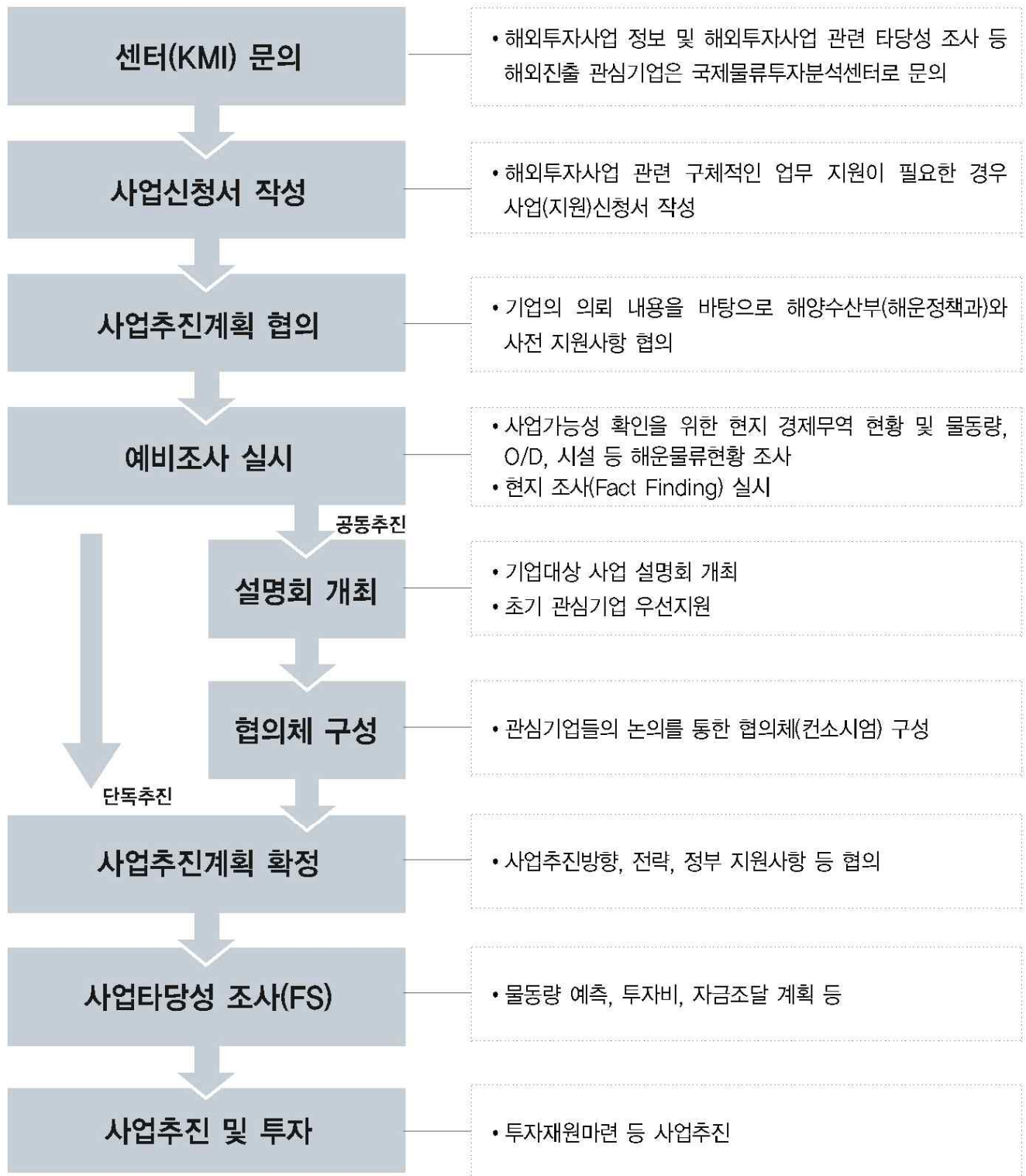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내 주요 지역의 도로운송을 수행하려는 움직임 대두

- 도로운송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들 간의 규제 장벽 철폐를 통해 저렴한 동유럽 국가들의 트럭을 활용하여 서유럽 국가들에게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도로운송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4.24.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in052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